

解剖學用語, - 肺인가 肺臟인가 -

和栗秀一* · 鄭雲翼**

머 리 말

일본 수의학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해부학용어를 살펴보면 用語의 變遷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 특기할 것은 臟器중 즉 心臟, 肺臟, 肝臟, 脾臟, 腎臟, 膀臟 등의 用語를 보면 臟器名에 「臟」이라는 單語의 尾語가 붙은 合成語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근래 일본수의학계에서는 이 五臟중에서 유독 「肺臟」만은 「臟」의 尾語를 붙인 合成語를 使用치 않고 다만 「肺」라는 單語를 使用하고 있다. 그 理由는 무엇인가.

우리나라 學術用語制定에 있어서 羅典語의 用語를 비롯하여 英語, 獨語, 日本語의 用語를 參考하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한번 검토해보아야 할 문제인것이다.

여기 일본의 「反芻動物의 解剖學」 「家畜의 器官組織學」의 著者인 日本 北里大學 獸醫解剖學 教授 和栗秀一의 見解와 이에 對한 考察을 紹介코져 한다.

「肺」라는 것은

肺의 進化概觀: 肺는 空氣呼吸하는 陸棲하는 脊椎動物에서 볼 수 있는 呼吸器의 하나이다. 魚類의 air bladder (鰾, 부레) 보다도 肺가 먼저 빨리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肺가 鰾보다도

原始的이라는 고찰도 있지만, 肺와 鰾과는 相同 器官인 것이다. 兩生類에서 肺는 다만 간단한 囊狀인 것이 많고, 肋骨, 橫隔膜, 胸腔의 區別이 없으며 오히려 이런 種類에서는 皮膚呼吸이 왕성하다. 爬虫類에서는 氣管支가 樹枝狀으로 分枝되어 그 末端이 肺胞에 連結됨으로써 肺가 출현(악어, 거북이類) 하는 것, 肺에서 囊狀의 突起(氣囊)가 突出하는 것(가메레온科)이 있다. 鳥類에서는 肺에 氣囊이 붙어 있는 것이 보인다. 哺乳類에서 肺의 원천은 動物分類學的으로는 爬虫類의 악어, 거북이型에 해당되며 鳥類의 肺는 가메레온型에 속하게 된다(平光 1983).

이와 같이 肺는 身體의 개교환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서 동물의 生死에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고 있는 器官이다. 肺는 解剖學的으로는 胸腔의 左右兩半을 채우고 극히 좁은 間隙을 지니면서 胸壁에 接하고 있다. 左右兩肺 사이에는 心臟, 大血管, 食道 등이 끼어 있다(金子 1968, 加藤 1979, 森田: 楠 1984). 器官學總論的으로는 實質型臟器에 屬하고 있으며 分葉 type의 特徵을 지닌다(和栗 1985, 和栗, 鄭, 1986). 또 肺는 古時代에서는 五臟의 하나로 꼽고 있어 李挺植의 「醫學入門」, 許浚의 「東醫寶鑑」, 山脇東洋의 「臟志」에는 心(心臟), 肝(肝臟), 脾(脾臟), 腎(腎臟)와 같이 體腔內의 重要臟器에 配置하고 있었다(金子 1968).

「肺臟」으로 記載된 文獻

* 日本 北里大學
** 家畜衛生研究所

三省堂發行的「新國語中辭典」(1970)에는「肺」의 項目에서「肺臟」이라고도 쓰여지고 있다. 옛날에는 肺나 肺臟이라는 用語를 同義語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文獻적으로는「肺臟」 또는「肺」로 記載되고 있는 사실이 그 증거인 것이다.

「肺臟」이라고 記載된 것으로서는 梅野(1913), 戶澤(1928), 江本·山本(1960), 川田(1961), 緒方(1963), 川田·醜圃(1970) 등이 있다. 肺臟以外 心臟, 肝臟, 脾臟, 腎臟 등의 用語도 동시에 쓰고 있다(江本·山本 1960, 川田 1961).

「肺」로 記載된 文獻

「肺」로 記載된 것으로서는 「假名安驥集」(1604), 「解體新書」(1774)를 위시하여 「家畜醫範」(1886), 增井(1950), 山極(1958), 金子(1968), 金子(1969), 加藤(1979), 和栗(1980), 「解剖學用語」(1969), 「家畜解剖學用語」(1981), 「一般解剖學用語」(1986) 등이 있다. 그런데 이때에는「肺」뿐만 아니라 肝, 脾, 腎, 心(假名安驥集 1604, 解體新書 1774, 金子 1969). 또는 肝, 脾, 腎, 心臟(家畜醫範 1886, 增井 1950, 山極 1958)으로 쓰여 있어 臟器의 用語使用에 있어 統一性이 缺如되고 있다.

用語의 變遷

그렇다고 肺臟이 정확한 것이냐 또는 肺가 더 정확한 것이냐 이것은 다음의 用語變遷을 살펴 보면 그 疑問이 풀릴 것이다.

解剖學用語(NA, nomina anatomica)는 國際的, 史的으로는 1895年 制定된 BNA(basel nomina anatomica, 人體中心의 用語), 1935年 制定된 JNA(jena nomina anatomica, 人獸共通의 用語) 그리고 1955年 制定된 PNA(paris nomina anatomica, 人體中心의 用語)로서 1965년에 補修 追加)로 이어져 3차에 걸쳐 점차적으로 用語를 整理하고 統一하여 왔다. 그리고 PNA의 各 用語에 對應하는 日本語用語가 制定되었다(森田·楠 1984, 中井 등 1984).

한편 家畜解剖學用語는 PNA制定後에 1986年과 1973년에 NAV(nomina anatomica veterinaria),

1983년에 NAV-NH(nomina anatomica veterinaria - nomina histologica)로 整理된 바 있다. 現在 日本國에서는 NAV에 따른 NAVJ(nomina anatomica veterinaria japonica)가 決定되어 使用되고 있다(加藤 1979). 이 NAVJ에는 Pulmo, lung(S)에 對應하는 日本語用語는「肺」으로 決定되어 있다. 더 付言하자면 日本獸醫學會 解剖學分科會에서 협의한 바에 의하면 慣用語(여기서는 肺臟의 用語)를 教育이든가 實務에 사용해도 좋으나 羅典語가 萬國共通의 公用語이고 그것에 對應하는 日本語用語는 國內에서 最優先이다-라는 理由로「肺臟」보다「肺」가 優先하는 用語이라는 것이다.

또한 過去에는 解剖學用語로서 研究者名(人名)을 사용한 일도 있었다. 예를 들자면 Fallopian氏管(→卵管), Graaf氏卵胞(→胞狀卵胞), Botallo氏管(→動脈管), Hassall小體(→胸腺小體)등이다. 그러나 PNA의 補修, 追加以後에는 人名을 使用치 않은 方針으로 되어 있다.

以上을 要約하면 日本語의 解剖學用語(1969), 組織用語(1981), 家畜解剖學用語(1981)에는 肺는「肺」이며 그 以外 心臟, 肝臟, 脾臟, 腎臟, 脾臟이 正式 名稱으로 定해지고 있다(金子 1968, 加藤 1979, 和栗 1980, 和栗·鄭 1986).

「臟」의 用語概念上的 「肺」와 「肺臟」

漢字文化圈國家(中國, 韓國, 日本國 등)에서 使用되고 있는 漢字의 解剖學用語의 源泉이 中國古代醫書에 由來된 것이라고 보면 現代解剖學用語의 語義를 이 古代醫書에서 考察하여 볼 必要가 있다. 醫學入門(李挺植, 1575), 東醫寶鑑(許浚 1611)에 臟腑라는 用語가 나타나며 이 臟腑는 五臟六腑로 構成되어 있다. 여기서 五臟이라 함은 心臟, 肺臟, 肝臟, 脾臟, 腎臟 등을 말한다. 이 五臟에는 精氣, 血氣, 魂魄이 貯藏되어 있고 이것이 外瀉하지 않는다고 說明하고 있다.

古代醫人들은 한 臟器에 어떤 物質 또는 氣가 充滿하고 있으며 이것이 밖으로 빠져 나가지 않은 것에「臟」이라는 用語를 賦與하여「臟」

의 개념과 특성을 지니게 하였다고 본다. 즉 오늘날 現代醫學에서論하는「實質臟器」와 同義語인 셈이다.

그렇다면 心臟은 心筋組織, 肝臟은 上皮組織, 脾臟은 網狀織組織, 淋巴組織, 腎臟은 上皮組織, 肺臟은 空氣로 充滿되고 있음으로「臟」의 개념으로 볼 때 이들 五臟은「臟」의 특성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肺의 組織學的構造는 肺胞 또는 氣囊으로 形成되고 있어 많은 空間이 있다. 여기에 空氣가 貯藏된다는 事實을 볼 때는「肺臟」의「臟」의 개념에 合致된다.

그러나 肺의 生理機能 即 空氣出入은 可變性이 있기 때문에 肺의 無氣狀態일 때는「臟의概念」이 消失된다. 따라서 肺는 組織構造上, 機能上에서「肺臟」이 아닌「肺」라는 用語로 使用하는 것이 妥當性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맺 음 말

科學研究에 있어 항상 用語問題가 抬頭 되고 있다. 새로운 事象이 發見되고 새로운 學說이 확립됨에 따라 새로운 用語가 創出하게 마련이다. 이 用語의 概念을 파악하지 않고는 事象의 表現을 할 수가 없다. 따라서 意識의 深層에서 파악된 事象을 어떠한 表現言語를 使用하느냐에 따라 科學事象을 正確하게 傳達하느냐 양느냐가 決定된다. 따라서 表現言語는 새로히 創出되기도 하고 補修되기도 한다.

參 考 文 獻

1. 江本修, 山本脩太郎(1960): 家畜病理解剖學. 金原出版株式會社.
2. 橋本道派(1604): 假名安騷集 卷一.
3. 平光屬司訳(1983): Romer著, 脊椎動物のガラダその比較解剖學), 法政大學出版局.
4. 一般解剖學用語(1986): 解剖學雜誌, 61卷附錄.
5. 解剖學用語(1969): 改訂11版, 丸善株式會社.
6. 家畜解剖學用語(NAVJ)(1981): 共榮商事株式會社.
7. 金子丑之助(1968): 日本人體解剖學 第二卷, 南山堂.
8. 金子 仁(1969): 臟器と病變の見分けかた, 醫學書院.
9. 加藤嘉太郎(1979): 家畜比較解剖圖說 下卷 養賢堂.
10. 川田信平(1961): 家畜解剖學實習, 産業圖書株式會社.
11. 川田信平, 醍醐正之(1970): 家畜解剖方式(增訂版), 西川書店.
12. 増井 清(1950): 家畜比較解剖學 上·下卷, 養賢堂.
13. 森田 茂, 楠 農和訳(1984): グラント解剖學圖譜(第3版), 醫學書院.
14. 中井準之助 他(1984): 解剖學辭典, 朝創書店.
15. NAV-NH(1984): Ithaca, N.Y.,
16. 緒方和三郎(1968): 病理組織學を學び人人に-實習を受ける學生と研究者のために-, 金原出版株式會社.
17. 杉田玄白(1774): 解體新書 卷一, 二, 三, 四(復刻·普及版), 出版科學總合研究所.
18. 田中 宏(1886)家畜醫範 卷二(解剖學二), 同卷三(解剖學三) 文光堂.
19. 戶澤富壽(1928): 動物系統解剖學, 内田老鶴園.
20. 組織學用語(1981): 解剖學雜誌 56卷 附錄.
21. 梅野信吉(1913): 家畜比較解剖圖譜(改訂4版), 有隣堂書店.
22. 和栗秀一(1980): 家畜の器官組織學(改訂2版), 學窓社.
23. 和栗秀一(1985): 家畜動物の器官學-器官をどう見るか-, 獸醫畜産新報. 769: 479~482.
24. 和栗秀一·鄭雲翼(1986): 動物の器官學, 大韓獸醫師會誌. 77~567~572. :
25. 山極三郎(1958): 獸醫病理解剖學, 文永堂.
26. 李挺植(1575): 醫學入門.
27. 許 浚(1611): 東醫寶鑑.